

SK그룹, 중동서 자원경영 2라운드

남미·AUS 이어 자원협력 적극화 ... 국가간 자원전쟁 해결 지름길

2011년 초 남미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자원경영을 펼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중동에서 자원경영 2라운드에 나섰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사우디, 쿠웨이트, 터키 등 중동지역 국가를 차례로 방문해 자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3월25일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Aramco와 Sabic, KPC(Kuwait Petroleum) 등 중동 석유화학 메이저들의 CEO들과 만나 자원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K는 2월 사우디 Aramco가 발주한 19억달러(약 2조1000억원) 상당의 초대형 Wasit 가스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3월24일 사우디에서 열린 ABC포럼(Asia Business Council)에도 참석해 에너지 및 자원 리더들과 함께 자원협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 터키를 방문해 에너지 및 발전분야의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K관계자는 “SK는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 등의 기술로 자원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자원국가는 SK의 자원확보에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자원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세계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가간 자원전쟁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자원협력”이라고 말했다고 SK는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5>